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지축은행 | 226-0180

광주 13/22℃ 목포 14/21℃ 여수 17/23℃
단기 4343년 (음력 9월 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800호 1판 2010년 10월 13일 수요일

9일 남은 영암F1 성공개최 총력전

서킷 최종검수 통과…FIA 기술대표 "100% 만족"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이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최종 검수를 통과, '2010 코리아 그랑프리(10월22~24일)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개최 여부를 놓고 팽배했던 부정적 시각을 걷어내고 국내 최초로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F1 대회를 마침내 전남에서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세계적 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F1 대회운영법인 KAVO는 12일 "국제자동차연맹(FIA)이 11일 영암 서킷에 대한 검수를 벌인 결과 최종 승인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검수를 총괄한 F1 레이스 디렉터인 FIA 안전부문 최고 책임자 찰리 화이팅 기술대표는 "100% 만족할 만큼 완벽한 경기장이었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를 통해 공식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수를 통과함으로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은 국내 최초로 '그레이드 1' 등급을 받은 국제 자동차 경주장이 됐다. 1등급을 받아야만 F1 대회를 치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수준의 트랙 노면 평탄성과 국제 기준의 안전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화이팅 위원장은 "한국의 F1 경기장이 최고 등급을 받아 매우 기쁘다"면서 "신생 서킷답게 모범적인 안전 구조를 갖추면서도 관중석과 트랙 사이 간격을 좁혀 놓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올해 한국 대회는 매우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AVO는 검수에 앞서 길이 5.615㎞의 트랙 표층 포장과 안전 확보 지대인 런 오프(Run Off) 지역 단장 및 보호 펜스 설치, 각종 충격완화설비 배치 등의 작업을 마쳤다.

KAVO측은 "현재 레이스 관련 시설은 100% 완공됐으며 가설 관중석 설치, 경주장 진입로 조경 및 주차장 단장 등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대회 검수가 예정보다 미뤄지면서 일부 외신에서 대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이번 검수 통과로 대회를 앞두고 팬들의 기대감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번 검수 통과를 계기로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한 만큼 미진한 경주장 주변 정리를 비롯 개최 분위기를 띄우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쌀값 폭락 항의 트랙터 시위 12일 보성군 보성읍 농협 미곡처리장 앞에서 농민들이 트랙터와 콤바인 등을 앞세워 쌀값 보상과 쌀값 폭락대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성군 쌀 대책위원회는 이날 1차 시위를 시작으로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6면 /보성=나명주기자 mjna@

한국영화 사랑 전남도민 최고

전남도민이 한국영화를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영화 관객 대비 한국영화 관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남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서울은 꼴찌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12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영화 관객 255만3098명 중 135만6543명이 한국 영화를 관람, 한국영화 점유율이 53.13%로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전남의 한국영화 점유율은 44.95%로, 전국 1위를 고수했다.

반면 서울은 지난해 4976만9063명의 관객 중 절반도 못 미치는 2219만2229명(44.59%)이 한국영화를 봤으며, 올해의 한국영화 점유율도 36.76%에 그쳐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한국영화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남에 이어 경북(52.4%), 경남(51.11%), 울산(51.07%), 충북(50.98%), 광주(50.72%), 부산(50.22%) 등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시 교통시설 적자보전에

9년간 혈세 4156억 퍼부었다

광주시가 최근 9년 동안 지하철 1호선과 제2순환도로, 시내버스 등 교통시설의 적자보전 등에 무려 4156억원을 쏟아 부어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교통시설 적자보전금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시의회 허문수 의원(광산구 2)은 12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광주지하철 1호선 무임수송 손실액과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교통시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광주시가 최근 3~9년 동안 총 4156억원의 손실액을 시비로 보전했다"며 국고 지원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하철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최근 6년 동안 1792억 원의 적자보전금이 투입됐다. 광주지하철 개통 첫 해인 2005년에 235억 원의 적자보전금이 투입된 데 이어 ▲2006년 267억원 ▲2007년 286억원 ▲2008년 303억원 ▲2009년 350억원으로 매년 보전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도 지난 2002년 이후 최근 9년 동안 1231억원이 투입됐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지난 4년 동안 133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보전지원금은 지하철 1호선에 350억원, 준공영제를 하는 시내버스에 288억원,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229억원 등 총 867억원에 달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 보전지원금은 늘어 지하철 1호선에 370~380억원, 시내버스에 356억원,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223억원 등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허 의원은 내다봤다.

특히 허 의원은 지하철 1호선 무임승차율이 31%로 타 도시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무임수송 손실액을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 주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시내버스 보전지원금을 줄이려면 운송 원가 절감 및 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며, 버스요금 100원을 인상하면 약 114억원의 재정보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을 시에서 매입해 통행료를 인하한다면 통행 편의 증진과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느정도 적자는 불가피 하다"라며 "도시철도 1호선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수송수요 창출과 부대수입 극대화, 경영효율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내버스의 경우 정부의 버스요금 인상 억제와 무료 환승 확대, 인건비 및 연료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급증해 시 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노선별 표준 연비제나 대당 적정 운전원 설정 등을 시행하고 있고 시 재정보전금의 10%대에 불과한 분권교부세를 50%까지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10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 : 2010. 10. 17(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정 병 용

광주 R&D특구 면적 절반 축소될 듯

정부가 올 연말 지정을 앞두고 있는 광주 R&D(연구·개발) 특구의 면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개발된 산업단지는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5년마다 수요가 있을 경우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초 R&D특구 면적으로 신청한 51.2㎢ 가운데 이미 개발된 하남·평동산단과 개발예정인 산정·등임지구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지경부와 협의중이다. 이들 지구가 빠지면 R&D특구 면적은 25㎢ 안팎으로 줄어들며, 향후 조성예정인 진곡산단과 연구기관이 밀집된 첨단산단, 신룡지구와 장성 그린벨트 일부 등이 포함된다.

하남산업단지측이 특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데다, 특구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규제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높기 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경부는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5년마다 특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만큼 처음부터 대규모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시 역시 애초 신청한 R&D특구 면적 54㎢ 가운데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21㎢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평동산단을 특구에 포함시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특구 면적을 최대한 넓게 지정받아 정부의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는 광주시의 애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면적이 줄어들 경우 특구 지원규모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지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보문고 신입생모집
10월20일~25일 원서접수
•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 전국 최상위 튼튼재단!
• 전교생 수용 최첨단 명품 기숙사 신축
• 보다 폭넓은 장학금 제도!
• 2009 교과부 선정 영어리더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062) 940-8800

자이
따져볼수록 완벽한 최고의 명품아파트!
첨단자이
빛고을로 개통특혜
공원같은 아파트
확트인 전망
공원형 테크설계
넓은 동간거리
자이안센터
GS건설
광주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특별한 행운!
광주의 미래가치를 모두 누리게 될 명품 첨단자이를
17~23% 파격 할인된 가격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미 많은 분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첨단자이의 가치를!
17~23% 파격할인
계약금 정액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감면
60% 대출가능
첨단자이를 만나면 광주의 미래를 누립니다!
· 시세차익 실현의 기회
· 다양한 첨단설비-리프레시 에어 시스템
· 최고의 단지조경, 커뮤니티 시설
· 빛고을로 개통 예정으로 도심접근성 개선
· 선착순 동호수 지정
· LED투자기업 유치 예정
110㎡/115㎡/165㎡/193㎡ | 총 594세대(구33~58형에 해당)
현장분양사무실 (108동 101호)
분양문의 062) 368-2020
시행사 : 생보부동산신탁 위탁사 : K&D건설(주) 시공사 : GS건설 자이홈페이지 (www.xi.co.kr)
※본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9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사업계획 승인 : 1단지 2007.9.17(건축과-22709) ■ 시행(공동시행) : 1단지 (주)생보부동산신탁 ■ 위탁자 : 1단지 K&D건설(주) ■ 시공 : GS건설(주) ■ 분양물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연면적 : 1단지 104,058.40㎡ ■ 지번 : 1단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590-1번지 일대 ■ 대지소유권 : 100%확보 ■ 분양대금관리 : GS건설